

〈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 방식*

- 인물비교서술을 중심으로

김은일**

〈차 례〉

1. 서론
2. 〈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 양상
3. 〈명주보월빙〉 연작의 다채로운 서사 전개와 스토리월드의 확장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명주보월빙〉 연작이 지니는 의미를 글쓰기 방식의 하나인 비교서술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성품 및 성격 비교서술 양상과 외모 묘사 및 순위정하기 비교서술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본 그 결과 〈명주보월빙〉에서 집중해 놓은 서사를 〈윤하정삼문취록〉에서 확산하며, 〈엄씨효문청행록〉은 〈윤하정삼문취록〉에 의지하되 새로운 서사에 집중한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명주보월빙 연작의 세계관 하에서 다양성을 지닌 작품’으로 이해된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희을 미토스로 하는 세계관 속에서 다양한 서사를 아낌없이 펼쳐내며 스토리월드를 확장하며, 확장할 가능성도 지닌다. 그러나 하나의 세계관이 서사의 균질성이나 서술자 의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주보월빙〉 연작이 쓰이고 널리 읽혔다는 것은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엄청난 주제 의식이나, 소설적 완성도보다는 유기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 독자들이 흥미를 찾았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11215).

** 충북대학교 강사

□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 국문장편소설, 연작소설, <명주보월빙> 연작

1. 서론

<명주보월빙> 연작¹⁾은 현재까지 작품이 존재하는 연작소설 중에서 가장 긴 호흡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 할만하다.²⁾ <명주보월빙> 연작 중 <윤하정>만 집계하더라도 등장 인물이 400여 명이 넘고, 주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혼사’를 중심으로 서사를 재구하였을 때 결연담만 70여 건³⁾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작품이다. 또한 세책방에서의 소장 및 대여 기록도 남아 있어 인기가 제법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⁴⁾ 긴 호흡의 방대한 장편은 작품을 집필하는 작가에게도,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도 읽고 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어쓰기를 계속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한편 꾸준히 읽혔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명주보월빙> 연작 관련 논의는 각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와 연작의 관계에서 작품을 조명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전자의 연구가 제법 축적

-
- 1) 이하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을 아울러 표현할 때는 ‘<명주보월빙> 연작’으로 쓰며, <명주보월빙>은 <명주>, <윤하정삼문취록>은 <윤하정>, <엄씨효문청행록>은 <엄씨>로 표기한다.
 - 2) <명주보월빙> 연작은 3부에 해당하는 <엄씨효문청행록>까지 포함하여 총 235권의 분량이다. <임씨삼대록> 연작 65권, <쌍천기봉> 연작 45권, <천수석> 연작 89권, <보은기우록> 연작 112권, <유씨삼대록> 연작 32권, <현씨양옹생탄기> 연작 59권, <현몽쌍룡기> 연작 101권 등 현재까지 알려진 연작을 파악했을 때 <명주보월빙> 연작이 가장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 3)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인물간 결연의 특성」, 『은지논총』 17, 은지학회, 2007, 354쪽.
 - 4) 전상욱, 「항목동 세책의 대출장부에 대한 고찰」,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547쪽.

되어 있는 상황이다.⁵⁾ 개별 작품을 대한 논의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하

- 5) 우선 〈명주보월빙〉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작품의 구조를 분석한 것(성숙, 「〈명주보월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132쪽; 이상택, 「〈명주보월빙〉 연구-그 구조와 존재론적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1~131쪽; 이상택, 「〈명주보월빙〉의 작품세계」, 『정신문화연구』 1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81, 201~212쪽; 부인식, 「〈명주보월빙〉의 천상계에 대한 수사적 접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46쪽). 등장 인물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분석한 것(박경숙,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인물형상화의 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70쪽;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 반동인물 연구」, 『고소설 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93~126쪽;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 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309~342쪽; 김은일,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201~228쪽; 이후남,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요괴 연구-여우 신묘랑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2019, 171~201쪽; 채윤미, 「한글장편소설의 요도 요승 형상 연구-〈임씨삼대록〉, 〈쌍성봉효록〉, 〈명행정의록〉, 〈명주보월빙〉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0, 이화어문학회, 2020, 141~173쪽). 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것(김경희, 「고전소설을 활용한 온라인게임의 서사화 방안-〈명주보월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58쪽). 등이 있다. 다음으로 〈윤하정삼문취록〉의 경우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주로 인물의 양상을 통해 의미를 밝혀내는 것에 편중되어 있으며(장시광, 「〈윤하정삼문취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양상과 그 서사적 기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197~247쪽; 장시광, 「〈윤하정삼문취록〉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1~29쪽; 정영신, 「여성 가장의 역할과 기능-〈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동방학』 1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145~182쪽;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인물간 결연의 특성」, 『온지논총』 17, 온지학회, 2007, 321~358쪽; 정영신, 「남성 가장의 역할과 기능-〈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8, 온지학회, 2008, 249~270쪽), 융합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 대표 혼사담에 내재한 영상문학적 요소의 시론적 고찰」, 『동방학』 1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345~374쪽)도 있다. 한편 그 밖의 당대의 문화를 파악하는 자료로 〈윤하정삼문취록〉을 활용한 경우(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사대부가의 유교적 가정생활 고찰-가문 구성원간의 예(禮)를 중심으로」, 『동방학』 2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283~324쪽;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사대부가의 상례 양상과 의미」, 『동방학』 3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5, 82~115쪽)도 있다. 또한 〈윤하정삼문취록〉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의 혼사담 연구」, 한국외대박사학위논문, 2008, 1~311쪽)도 진행된바 있다. 정영신은 연작의 틀에서 작품을 분석할 경우 작품들을 면밀하게 읽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하며 〈윤하정삼문

고 있으나 연작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드러나는 의미를 놓치기도 한다. 연작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는 이상택과 최길용이다.⁶⁾ 이상택⁷⁾은 두 작품 간의 연계성을 통해 〈명주보월빙〉 연작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다만, 〈명주보월빙〉 연작의 구조적 연계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사건의 반복’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3부에 해당하는 〈엄씨〉를 포함하지 않았다.

최길용은 ‘반복적인 사건 구조’와 ‘유형적인 인물’을 통해 연작의 통합성을 살펴보았다. 그는 연작소설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연대성을 이루는 자질에서 연작성을 찾을 것을 시사한다.⁸⁾ 그러면서도 〈엄씨〉로 이어지는 3부작

취록)의 혼사담을 통해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윤하정삼문취록〉 개별 작품의 위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 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윤하정삼문취록〉에 주목하다보니 〈명주보월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윤하정삼문취록〉 이해에 〈명주보월빙〉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명주보월빙〉 연작을 일관된 원리로 분석하려는 노력은 적어 보인다. 다음으로 〈엄씨효문청행록〉의 경우에는 유현주가 〈명주보월빙〉 연작의 3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인정하고 개별 작품론(유현주, 「〈엄씨효문청행록〉 연구, 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 1989, 1~110쪽)을 진행한 후 한참 뒤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현주는 〈엄씨효문청행록〉의 기초 연구 토대를 다졌고, 그 후 박영희, 조광국, 이현주, 김서운 등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이들 연구는 〈명주보월빙〉과의 연작 관계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경향이 있다. (박영희, 「〈엄씨효문청행록〉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의미, 『어문연구』 29, 어문학회, 2001, 134~149쪽; 조광국, 「〈엄씨효문청행록〉에 구현된 벌열가부장제, 『어문연구』 32, 어문학회, 2004, 227~253쪽; 조광국, 「벌열소설의 효 구현 양상에 대한 연구-벌열소설 전개의 한 측면: 〈유효공선행록〉, 〈엄씨효문청행록〉,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어문학회, 2005, 135~161쪽; 이현주, 「조선 후기 가문 소설의 계후갈등 변이양상 연구 -〈엄씨효문청행록〉, 〈성현공숙렬기〉,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2, 한민족어문학회, 2012, 451~474쪽; 김서운, 「〈엄씨효문청행록〉의 모자 관계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275~309쪽).

6) 이상택, 「〈윤하정삼문취록〉 연구-〈명주보월빙〉과의 작품적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337~358쪽;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83, 1~173쪽;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89, 1~228쪽.

7) 이상택(1981), 앞의 글, 337~358쪽.

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이에 대해 유현주⁹⁾는 연작의 유형을 직계형 연작과 방계형 연작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를 이어 서사가 전개되는 경우를 직계형 연작으로, 같은 대의 다른 가문으로 공간을 옮겨 서사가 전개되는 경우를 방계형 연작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인선¹⁰⁾은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운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바탕으로 〈명주보월빙〉 연작의 소설사적 의의를 도출한 바 있다. 구조반복과 주제적 통일성을 파악하던 연구에서 나아가 〈명주〉와 〈윤하정〉의 서사적 연결성을 정밀하게 진단하였다. 또한 〈명주보월빙〉 연작이 당대 소설창작 관습을 기반으로 복합양식을 모색했다는 점, 당대 국문장편소설들이 지니는 관습의 이면에 삶과 운명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명주보월빙〉 연작이 조선후기 국문장편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엄씨〉를 함께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 〈명주보월빙〉 연작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일단은 두 작품 간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명주보월빙〉 연작으로 다루는 움직임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이 계열체(paradigm)라면 〈명주보월빙〉 연작은 통합체(syntagm)라 할 수 있다.¹¹⁾ 지금까지의 연구의 경향을 보면 계열체에

8) 최길용(1983), 앞의 글, 1~173쪽.

9) 유현주(1989), 앞의 글, 1~110쪽.

10) 유인선, 「〈명주보월빙〉 연작 연구-운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231쪽.

11) syntagme는 계기체, 통합체 등으로 번역되며 paradigm은 병렬체, 계열체 등으로 번역된다. 일반언어학에서 syntagme는 “랑그의 선적 관계를 바탕으로 연쇄 관계”를 이루는 것, 예를 들어 하나의 문장이라고 한다면, paradigm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야기의 구조 연구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데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뿐만 아니라 실존하지는 않으나 ‘석씨기록’, ‘소씨기록’ 등 연작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지는 각 작품들은

대한 연구와 통합체에 대한 연구로 양분할 수 있는데 각 작품론은 계열체의 면면에 집중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체 관련 연구는 통합체로서의 조건을 확인하는 정도였지 ‘통합체’ 자체를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이해하고 작품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서사물이 이야기와 담론¹²⁾으로 구성된다 할 때, 연작(통합체)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는 ‘이야기’ 중심의 연구¹³⁾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통합체로서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이다.¹⁴⁾ 이는 ‘담론’¹⁵⁾ 차원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정창권¹⁶⁾은 국문장편소설

paradigme으로, 〈명주보월빙〉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는 작품의 총합(〈명주보월빙 연작〉을 syntagme라 할 수 있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 김현권 역, 『일반언어학 강의』, 지식출판드는지식, 2012, 250~265쪽;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3, 64~66쪽; 오세정, 「한국 건국신화의 정치적 약호와 상징작용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8,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15, 159~164쪽).

- 12) ‘이야기’는 작가가 서사적 매체를 통해 상상적 세계를 재현한 것으로 ‘인물, 사건, 배경, 주제’ 등이라 할 수 있다. ‘담론’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 ‘언어로 표현된 진술’이나 ‘도표나 이미지를 통한 진술’ 등이라 할 수 있다. (S.채트먼,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13~48쪽).
- 13) 물론 ‘이야기’ 측면에서도 통합체를 심도 깊게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35권에 달하는 긴 분량의 작품을 읽는 것만으로 지대한 시간이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도 힘든 작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명주보월빙〉 연작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나 갈등 양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축적되어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야기 측면에서 검토보다, 〈명주보월빙〉 연작이 한 편의 작품 세계를 형성한다는 전제하에 그간 살펴보지 않았던 ‘담론’의 측면에 관심을 갖고자한다.
- 14) 〈소현성록〉의 경우 본전과 별전으로 구성된 연작형 소설이지만 본전과 별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명주보월빙〉 연작은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으로 분리되어 개별 작품의 독립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소현성록〉의 본전과 별전의 서술상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으니 〈명주보월빙〉 연작과 같은 연작형 국문장편소설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국문장편소설에서 글쓰기 방식에 대해 접근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창권,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43~68쪽;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91-1291-110쪽.; 김문희, 「〈헌몽쟁풍기〉의 서술 문체론적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66~96쪽).

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 국문장편소설이 여성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통해 여성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는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 이는 국문장편소설 보편의 문제를 다룬 거시적 차원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나 국문장편소설의 각 작품이 지니는 특수성을 묵과한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비해 조혜란¹⁷⁾은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본전과 별전에서 감정과 외모를 묘사하는 서술의 특징을 도출하여 〈소현성록〉 본전과 별전의 서사 전개에서 발생하는 비균질성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본고 역시 〈명주보월빙〉 연작이라는 개별 작품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혜란의 연구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본고는 글쓰기 방식 중 비교서술에 집중하고자 한다. 비교서술은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글쓰기 방식이지만 각 계열체간 차이점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명주보월빙〉 연작의 통합체적 의미를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비교서술은 비교와 대조라는 글쓰기 방식과 유사하다. 비교와 대조는 일반적으로 대항글쓰기와 같은 ‘글쓰기 연구’에서 설명의 하위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립되는 견해를 토대로 두 대상의 유사점을 중심으로 대등하게 연결하여 진술하면 비교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등하게 연결하여 진술하면 대조¹⁸⁾’라 한다. 실상 학술적으로 용어를 정리했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인식선 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비교’하여 서술하는 방식은 문학 작품

15) S.채트먼, 한용환 옮김(2003), 앞의 책, 1~324쪽.

16) 정창권은 국문장편소설이 여성소설이라는 전제하에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의 특징을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여성 소설은 세상사를 장황하게 서술하며, 둘째, 여성 주변의 일상을 주요한 소재로 쓰고 있으며, 셋째, 대화체가 많이 나타나고 대화체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며, 넷째 신비성이 강화되어 있다. 그는 이러한 특징을 통해 여성 작가들이 독특한 여성의식을 표현하고 당대 여성의 의식까지 작품에 표출하였다는 의의를 도출하였다. (정창권(1999), 앞의 글, 43~68쪽).

17) 조혜란(2006), 앞의 글, 91-1261-110쪽.

18) 오현희, 「설명적 텍스트를 활용한 논리적인 글쓰기 방안」, 『국어교과교육연구』 19, 국어교과교육학회, 2011, 90쪽.

글쓰기 방식이나 그 외의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문학작품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명주〉-〈윤하정〉-〈엄씨〉로 이어지는 연작소설에 나타난 인물 비교서술의 양상을 통해 〈명주보월빙〉 연작의 통합체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 〈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 양상

주지하듯 비교서술은 보편적인 글쓰기 방식이다. 글쓰기 일반에도 적용 되고, 국문장편소설의 글쓰기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¹⁹⁾ 〈명주보월빙〉 연작에서도 이러한 비교서술이 흔히 나타난다.²⁰⁾ 다만 여러 작

19)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형은 농호의 기운과 산악의 무거오미 이셔 엄위하고 은은 덕기 성인하여 진것 도혹 군즈의 틀이 이시니...중략...대공즈는 회회풍농 화려하고 재미 제셔모로 회회 낭자홀 뿐 아니라 방외의 난죽 사름과 같이음하고 울괴로이 보치여 스스로 발월흔 기운을 당축디 못하여 호호히 고은 야학긔고 지죄 일취 월당하여 혼 번 눈의 지난 거슬 외오고 귀의 지나면 니즐 거시 업셔 천고 영웅의 기상이오 츠공즈는 문당 지혹이 초세하며 스흡 성회 싱이지지하여 으시 로브터 좌립의 네되 진중하고 언논이 정대하여 입을 연죽 공밍의 도덕이 나타나고 몸을 움죽이매 정대 군즈의 풍이 이시니 〈현몽쌍룽기〉 1권.

경문은 강의 열숙하여 비록 급거지시를 당하나 조금도 경동함이 없으니 진것 일쌍 명주보벽이로되, 경문은 잠깐 영발한 기운이 있더라. 〈현씨양웅쌍룽기〉 1권.

아름다운 얼굴이 서르 빛최디 오직 특출한 자는 윤석 이인이라...중략... 화시 잠간 찌디미 이시나 호흔 하등이 아니라...중략... 비컨대 금분의 흥북 부용이 성히 띄여 이슬을 머금어 도양의 썰턴 듯한 것티 디는 두견화로 곱와 이심 꺾트니 〈소현성록〉 4권.

말이 업슨 가운더 즈연 강열흔 기운이 이시니 그 위인인죽 고향 금너의 회흔하나 드만 양부인의 은은 겸공하며 요조 유한흔 즈최를 이어 무위이화하는 태고지풍을 쏘오미 어려울 거시오 지풍을 니를던디 엇지 양부인과 오르지 못호리오마는 만시 천진을 가져서미 양부인을 우러지 못호너라 〈완월회맹연〉 3권.

20) 어스는 치세경눈지지와 결승천니지외하는 총명디모를 겸하여 영기 출신하며 덩툽디 절이 이윤 너말의 후를 쓰로고...중략... 겸하여 세고의 무쌍허거늘 디스는 군즈유평과 생즈도덕이 공밍안중 이후의 혼 사름이라 〈명주보월빙〉 32권.

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명주보월빙〉 연작을 살펴보는 이유는 계열체 각각의 개별성과 통합체로서 〈명주보월빙〉 연작의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주보월빙〉 연작이 직계와 방계 형태로 다양한 연작의 양상을 보이면서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문장편 연작소설 중 먼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나는 인물비교서술의 양상은 크게 성품과 성격울 비교서술하는 경우와 외모를 비교서술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이때 ‘비교’의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서술’에 초점을 두고 유효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서술’ 국면을 떠나서라도 ‘비교’로 판단할만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명주보월빙〉에서 윤희천과 하여주, 하원광과 윤현아의 관계에서 역전된 처남 매부관계 등이 대조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명주보월빙〉의 하원광과 연군주, 〈윤하정삼문취록〉의 하몽성과 연희벽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연씨’집안에서 추모의 여인을 사혼시키는 데 대조적인 태도와 대조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점도 있다, 〈명주보월빙〉에서 윤희천과 위씨에게서 보이는 계후갈등은 〈엄씨효문청행록〉에서 엄창과 최씨에게서 보이는 계후갈등과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조적 상황은 같은 사건을 대하는 ‘인물의 차이’로 기인한 바, 인물에 대한 비교서술을 중심으로 양상을 도출하였다.

성품 및 성격 비교서술은 ‘A는 ~ 하되(하나/하니/하매/하는데/하고/하거늘) B는 ~하다’와 같은 서술 방식을 중심으로 양상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외모 비교서술은 ‘~ B에 불급하다(승하다/비할진대/위라/나온가 하더러/바라리오/일배승/더하다/방불하다/버금/미치지 못하다/아래 1인이다/같다/보다 못하다)’와 같은 서술 방식을 중심으로 양상을 도출하였다.

신부의 형이 만히 혜쥬갓터여 녀아 소년적 흠흡스하니 ...중략... 에엇븐 거동은 신부를 불급호오리니 신부 미져의셔 나는 작시로소이다. 〈윤하정삼문취록〉 2권.

(1) 성품 및 성격을 드러내는 비교서술

〈명주〉는 윤광천과 윤희천 쌍둥이의 서사와 정천홍의 서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작품으로 특히 윤광천과 윤희천을 제시할 때 비교서술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서술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이 더욱 차별화된다. 이는 윤광천의 서사가 윤희천의 서사와 별개로 전개될 것을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두 인물의 서사를 대등하게 전개하려는 서술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 ㉠ 희턴은 오히려 괴운이 나죽하고 처신이 공검당대하여 그 믿음은 금옥의 견고함미 이시니 넘녀로오미 업스디 광턴은 만히 호방하여 스스로 괴운을 제어치 못 하니 여모의 근심하는 비라²¹⁾
- ㉡ 희턴은 조모의 손을 잡아 모친의 두발을 풀녀함미 광턴은 금척을 아스더 지고 분분호흔 스식이 업지 아나 월²²⁾
- ㉢ 희턴공진 순설이 무익함을 피드라 일언을 아니코 광턴공진 다시 고코져 하더니²³⁾
- ㉣ 츄공즈는 인스를 바려 구러져시니 뉴시 착급히 시녀로 붓드러 제 방으로 드리고 당공즈는 정신을 출혀 물너 시옷술 곳치고 안의 드러와 으을 구호 하여²⁴⁾

㉠은 윤광천 형제의 모친인 조부인의 대사로, 윤광천의 호방하고 동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대조적으로 윤희천의 금욕적이며 정적인 성격이 드러나도록 한다. ㉡~㉣은 윤광천과 윤희천이 조모 위씨의 폐악에 대응하는 자세를 대조적으로 서술하면서 두 인물에 대한 조씨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21) 〈명주보월빙〉 2권.

22) 〈명주보월빙〉 7권.

23) 〈명주보월빙〉 8권.

24) 〈명주보월빙〉 9권.

행동이 우선적인 광천과 신중한 희천의 성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윤광천 윤희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천홍과 정세홍 형제를 비교²⁵⁾하거나, 하몽린과 하몽성 형제를 비교²⁶⁾하는 등 특히 남성 인물의 성격 차별화에서 자주 나타난다.

물론 여성 인물의 성격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인물인 윤명아와 윤현아, 정혜주와 정아주와 같은 주요 인물의 성격을 비교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경오는 심니의 피오미 원슈긋고 현오는 원별을 아득혀여 척비호를 마지 아니호디라”²⁷⁾와 같은 경우에 드물게 나타나는 편이다. 즉, 〈명주〉의 비교서술은 주로 남성 인물의 차별화를 나타내며 드물게는 여성 약인의 부각에 활용된다.

〈윤하정〉은 〈명주〉의 2세대인 윤광천, 윤희천, 정천홍, 하원광의 자손들의 서사가 주를 이루는데, 정운기, 하몽성, 윤성린 등이 3세대의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윤하정〉에서도 비교서술은 유지된다. 다만 〈명주〉에서 주요 남성 인물의 성격이나 여성 반동인물의 성격을 부각하는 것에 비해 〈윤하정〉은 더욱 다양한 인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한다. 〈윤하정〉의 비교서술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성 인물의 경우 〈명주〉가 주요 등장 인물을 비교하는 것에 비해

25) 제왕은 하일디위와 동일디이와 경운의 화기를 겸혀엿고 월후는 호호발양 하여 산히를 넘셀 듯 즐기물 당혀여 것칠 거시 업시 즐기거늘 〈명주보월빙〉 90권.

26) 단, 하몽성과 하몽린의 서사는 〈명주보월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의 서사는 〈윤하정삼문취록〉의 주요 서사가 된다. 이는 〈명주보월빙〉의 비교서술이 〈윤하정삼문취록〉의 서사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 놓은 서술자의 ‘기획’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양상만 나열하기로 하고 그 의미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츄공즈 몽닌의 일동일정이 네 아닌 일이 업고 네학이 그 부공이라도 불급홀 비로디 당즈 몽성은 괴운이 하날을 밧들고 태산을 썩힐 거시로디 허훈을 두리는 고로 단정혀여 〈명주보월빙〉 97권.

디어 몽닌 궂든 뉴는 가찰혀고 가르칠 비 업스나 몽성의 다드라는 이제부터 나의 심내 무궁호디라 만일 실슈하면 제어키 어려오리니 〈명주보월빙〉 97권.

27) 〈명주보월빙〉 10권.

〈윤하정〉에서는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과 비교하여 주요 인물의 능력을 드러내고 반동인물의 어리석음이나 악함을 부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운기와 조성난의 혼인에서 조성난의 모친 엄씨는 원흥을 사위로 삼고 싶어 한다. 엄씨는 정운기 집안의 호방함과 여러 아내를 두는 풍습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때 조성난의 아버지인 조현순은 엄씨에게 “덩운기는 만복이 구전하고 영귀 극진하려니와, 흥은 군즈의 틀이 엮고 소인의 간악한 정티 현저하”²⁸⁾하면서 두 인물을 비교한다. 이 서술에서 정운기의 성격이나 성품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인의 간악함’의 반대항으로써 ‘군자다운’ 성격을 지닌 인물로 표현하고자 한 서술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여성 인물의 선악 비교가 아닌 여성 인물 각각의 차별화가 드러나는 비교서술을 한다. 예를 들어 정운기가 여러 아내를 두는 문제로 정천홍에게 매를 맞고 몸조리를 하는 상황에서 보조적인 인물들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조성난은 정운기를 간병하기 위해 한난주와 화보벽을 불렀는데, 한난주는 “조부인이 청하시니 마지 못하여 이의 니르과이다”라며 말을 하면 반면 화보벽은 침묵하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인다.²⁹⁾ 또한 반동인물 간의 비교를 통해 반동인물의 차별성도 꾀한다. 이는 여혜정과 여수정을 비교서술한 것³⁰⁾에서 찾을 수 있다. 여수정은 〈명주〉의 여우 신묘랑이 환생한 인물로 〈윤하정〉에서는 지략이나 재능이 없이 색을 탐하는 인물로 표현된다. 그에 비해 여혜정은 전략적으로 남장을 하고 윤성린의 처소에 들어갈 정도의 대범한 인물로 표현된다. 이러한 양상은 〈윤하정〉서사에서 핵심적인 주요 인물이 아닌 인물의 성격도 차별적으로 서술하려

28) 〈윤하정삼문취록〉 2권.

29) 한시 턴연 디왈 첩슈불민이나 엇지 군즈의 화후의 문병치 아니리잇고마는 군지 엄하의 슈장하시미 첩의 어즈러이 모힌 연괴라 듀야 축척하더니 조부인이 청하시니 마지 못하여 이의 니르과이다 화시는 경금위좌하여 묵연 불어하니 〈윤하정삼문취록〉 13권.

30) 슈정은 아연 저상하여 유구 무언이오 혜정은 양턴 탄왈 나 혜정이 지릉 다모하여 고인만 못하리오만은 오늘 윤성린과 쇼봉난이 세상의 잇는 연괴라 〈윤하정삼문취록〉 101권.

는 서술자의 다양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셋째, 〈명주〉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윤하정〉에서도 반복 되는데, 이때 유사성이 있는 사건에서 인물들이 취하는 태도를 비교하면서 인물의 차별화를 꾀한다. 〈명주〉에서 정천홍이 양난염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할 때 윤명아가 길복을 짓는 것은 〈윤하정〉에서 정운기가 한난주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할 때 조성난이 길복 짓는 것과 유사하다. 이때 진씨와 운씨는 “전일 텃홍이 양시를 취할 적 윤현뷔 길복을 친집혀여 제자이 여차하더니 금일 조시 지조를 보건디 그 고모의 아리의 잊지 아니하니 잊지 귀특지 아니리오”³¹⁾ 라면서 조성난을 윤명아와 비교한다. 다른 예로는 하원광과 연군주, 하몽성과 연희벽의 비교를 들 수 있다. 〈명주〉에서 하원광이 추모(醜貌)를 가진 연군주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은 〈윤하정〉에서 그 아들인 하몽성이 추모를 가진 연희벽을 첫째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때도 서술자는 〈윤하정〉에서 〈명주〉의 사건을 예로 들어 비교서술한다. 서술자는 “하원광은 녀으를 취하나 오히려 지실이오 윤시 덕용이 흠홀 거시 업스미 녀으는 식춤으로 알아 사람으로 아니 치거니와 하몽성은 어린 나히 처음으로 희벽을 취하여 놀나로 차악하미 범연흔 곳에 잊지 아니리니”³²⁾라 하여 연군주와 연희벽이 추모라는 공통점은 지녔지만 사건의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것임을 비교를 통해 더욱 차별적으로 부각한다. 또한 〈명주〉를 계속 회상하게 하며 전편에 대한 인식을 지속한다. 이처럼 〈윤하정〉은 〈명주〉보다 비교서술을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다.

한편 〈엄씨〉는 엄창과 엄영이 주요 인물이기는 하지만 쌍둥이도 아니고 엄영의 서사가 엄창의 서사에 부속되기 때문인지 엄창과 엄영을 견주는 서술은 찾기 힘들다. 반면 엄창의 캐릭터에 대해 서술하면서 친형인 동오국의 세자 엄표와 비교³³⁾하는 것은 〈윤하정〉에서 반동인물과의 비교를 통해

31) 〈윤하정삼문취록〉 12권.

32) 〈윤하정삼문취록〉 14권.

주동인물의 캐릭터를 부각하는 방식과 유사한 양상이다. 또한 〈엄씨〉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엄영이나 엄창을 제외한 인물인 윤성린과 윤창린을 비교하는 양상³⁴)이나, 화회경과 조희영을 비교하는 양상³⁵)은 〈윤하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명주〉와 〈윤하정〉의 비교서술의 양상이 유사하고, 〈윤하정〉과 〈엄씨〉의 비교서술의 양상이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주〉에서는 남성 인물의 차별화를 위한 성품 비교와 여성 반동인물의 간악함을 부각하기 위한 성품을 비교하는 서술이 주된 양상이다. 하지만 〈윤하정〉은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서술을 활용하면서 남성 인물의 차별화는 물론 여성 인물의 차별화도 시도한다. 〈윤하정〉은 등장 인물의 주·부를 떠나 다양한 인물의 성격을 서술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엄씨〉는 특징적인 비교서술의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명주〉보다는 〈윤하정〉의 비교서술 양상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면서 〈윤하정〉을 깊이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외모를 묘사하고 순위를 정하는 비교서술

〈명주〉에서 외모를 비교하는 서술은 거의 여성 인물에 국한되어 있다. 국문장편소설을 포함한 고소설에서는 역사적으로 알려진 인물, 성인군자,

33) 창아를 금슈의 장을 황홀이 하여 좌중의 녀여오니 ...중략... 기형 표의 용우불인히미 비기리오. 낭야의 현불취 니도히미 뉴하혜와 도척 갖흐를 식지 감탄하더라. 〈엄씨효문청행록〉 1권.

34) 창닌은 성품이 광풍제월 갖고 활달디도하여 영결지상이라 진왕이 미양 칭찬왈, 창아는 쾌활장부지상이 성야의 닛다 하니 승상이 그 출뉴발취호를 깃거 아냐 가로디 창아의 남활방즈히미 맞춘니 성닌 질야의 군즈디질의 미지 못흐다 훈즉 진왕이 우어왈 성닌은 온중정디흐나 쾌할 준위흐른 창질만 못흐니 우형의 제지 적셔의 이십여인 이로부터 한낫 창닌 갖흐니 업스믈 한흐노라. 〈엄씨효문청행록〉 6권.

35) 화지 괴상이 단중치 아니커늘 녀야의 평심이 엇지될고 중시 심녀하여 조성의 단아함과 녀심의 온중함만 못하여 하니 〈엄씨효문청행록〉 2권.

미인을 상징하는 자연물 등에 빗대어 여성 인물의 외모를 묘사하는 편이다. 〈명주〉에서도 여성 인물들의 외모를 묘사할 때 고사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과 견주거나 미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자연물과 비교한다. 더 나아가 〈명주〉는 윤명아의 모친 조씨, 정혜주, 윤명아와 같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다른 등장 인물을 견주어 비교하는 서술이 매우 자주 나타난다.³⁶⁾ 예를 들어 정천홍의 어머니인 진씨 부인은 진성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본인의 딸인 정혜주와 양녀인 하영주와 견주어 순위를 매긴다.³⁷⁾ 그밖에 정천홍의 시각에서 윤명아와 그 어머니 조씨를 비교하면서 윤명아의 외모가 뛰어난을 드러내거나³⁸⁾, 서술자의 시각에서 윤현아와 하영주를 직접 비교하면서 외모의 순위를 비교³⁹⁾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명주〉에서 윤명아와 정혜주를 미와 덕⁴⁰⁾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인다.

한편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서사의 결말에서 잔치나 상례를 통해 등장 인물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장면이 있다. 〈명주〉 서사의 결말에도 등장 인물들이 모두 모이는 잔치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때 외모의 비교를 통해 미의 순위를 정하는 서술이 나타난다.

36) 물론 다른 작품에서 엄마와 딸의 외모를 닮았다는 식의 서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명주보월빙〉은 특히 정혜주, 윤명아, 윤현아와 같이 미와 덕이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인물들을 기준으로 다른 여성 인물과 비교하는 서술이 자주 나타난다.

37) 성염이 아름다오나 쇼미의 혜주와 양인 영취 오히려 성염의셔 나혼가 흐느이다 〈명주보월빙〉 16권.

38) 당한님이 투목 송아하미 광치 쇼저로 만히 굿타나 영복존귀지상이 불급하디 천고의 희한흔 식광괴질이니 〈명주보월빙〉 7권.

39) 영주 쇼제 신부로 상견홀시 쇼제 방년이 십일세라 빅티 천광이 빙정뇨라하여 ...중략... 황홀흔 즈티 오히려 신부의 일비승이오 화하고 어위츠고 너르고 유열흔 신뵈두어 층 더은디라 〈명주보월빙〉 11권.

40) 여성 인물의 외모 서술은 대개가 그 인물의 ‘덕성’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미인이어도 ‘덕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반동인물에 대한 묘사에 나타난다. 주요 인물의 ‘미’는 ‘덕’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 ㉠ 하부인과 낭 양시 경 화 쇼니시 소시 등과 신부의 텃향 율터 서로 바이여
 청등의 찬난이 붉은 가운데도 의렬비와 숙널은 각별이 썩혀나 윤시는 가
 을 하늘의 혼 조각 구름이 업스디 빅일이 한가흠 꺾고 덩시는 삼춘 난일이
 치운을 멩에하여 부상의 소스미 혜풍은 빅물을 붓쳐 니고 …중략… 윤시
 를 더히미 사름의 정신과 괴운이 상연하여 스스로 혼탁흔 슈회를 다 버셔
 바린 듯 시브고 덩시는 비록 투한협천 혼 인물이라도 므음이 할연청고 하
 여 단세의 노노흔 잠념을 썩쳐 일신이 혼화하여 반점 불현흔 의시 머므디
 아니니 인품을 의논홀진디 덩 숙널과 윤 의렬이 막상막하 하디 진짓 더두
 홀 성녀숙완이라 신명하고 괴이하여 천만고를 기귀우려도 둘 업스 지덕을
 일분호리도 숙널이 윤시괴 잠간 더은 듯 하디 그 스이 머디 아나 숙널은
 공즈 꺾고 의렬은 밍즈 꺾터니 스좌의 슈플 꺾튼 흥장분디 뉘 치를 잡아
윤 덩 낭인으로 병구하리오⁴¹⁾
- ㉡ 제왕비 오인과 니 양 한 주 소 주 화 등이며 창후 부인 숙널과 제 부인이
 금년을 즈약히 옮겨 나오니 각각 품슈흔 바 텃향특용이 만고를 기우려 엇
 기 어려운 즈식이오 네모횡동이 유법단일 하여 유연이 흑니군즈의 품이
 잇는 둥 제왕 삼비 니시와 도찰의 원비 두시는 용상흔 위인이로디 기여는
 다 선풍옥티라 윤의렬 덩숙널의 일월명광과 추슈정신이며 팔치염광이 태
양이 빗출 아스니 혼 번 보미 괴운이 상연하여 몸이 단세의 이시나 호호이
녕벽이 월궁 향으를 봄 꺾고 그 밧 니 양과 경비며 소 한 화 등과 문양
공주의 빅타미질이 개개히 화옥을 낮게 녀이며 금슈를 우이 녀이느디라⁴²⁾

이처럼 대등하게 견주어지는 두 인물은 윤명아와 정혜주이며, 다른 인물
 들은 윤명아와 정혜주에 견주어 순위가 떨어진다는 서술이 계속해서 드러
 난다. 또한 정혜주는 공자같고 윤명이는 맹자같다고 서술하면서 미와 함께
 덕의 경지도 정혜주와 윤명아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서술한다. 이는 미와
 덕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⁴³⁾ 다만 〈명주〉는 서사의

41) 〈명주보월빙〉 88권.

42) 〈명주보월빙〉 96권.

앞쪽에서 각각의 인물을 묘사할 때는 덕보다는 외모의 아름다움에 치중하는 편인데 서사의 결말에서 순위를 정할 때는 덕까지 아울러 뛰어난 것으로 서술한다. 이상, 외모 비교서술을 통해 〈명주〉에서는 미와 덕을 모두 갖춘 인물들 중에서도 윤명아와 정혜주가 가장 이상적인 인물형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하정〉도 〈명주〉처럼 여성 인물의 외모 비교가 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윤하정〉은 외모 비교도 성격과 성품 비교만큼 다채로운 양상으로 나타난다. 〈명주〉가 여성 인물들의 외모만 비교하는 양상과 달리, 〈윤하정〉은 남성 인물인 부마들의 외모를 비교하기도 하고⁴⁴⁾, 윤·하·정 세 가문의 자손이 아닌 현소혜와 현옥혜, 엄월혜와 엄선혜와 같이 부수적인 인물들의 외모를 비교하는 서술도 자주 나타난다.

한편 〈윤하정〉은 〈명주〉에 나타난 미의 기준을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미의 기준을 제시한다. 〈윤하정〉은 서사 중간까지도 〈명주〉에서 제시한 미의 기준을 이어간다. 이는 윤명아의 며느리인 철소저, 설소저의 외모를 비교할 때 “각각 고모(윤명아)의 성덕광휘를 계적할만하다”⁴⁵⁾고 비

43) 〈소현성록〉의 본전에서 미모에 대한 묘사에 공을 들이는 반면 별전에서는 색과 덕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색과 덕의 가치가 동등하지 않은 것은 유교적 사고 체계로 접근하는 것이며 당대 남성들의 허위의식을 감추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명주보월빙〉은 아마도 이미 형성된 관습을 따라 색과 덕의 일치와 함께 불일치도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혜란(2006), 앞의 글, 108~122쪽.

44) 범부마의 화류 갖춘 풍신이라도 금초후여는 오히려 노창호기의 밋쳐시니 옥선도위의 미옥 갖치 빛나고 아름다오를 밋지 못호고 혜선도위 허부마는 화풍 경윤지상의 비범 쇠락흐미니 교교히 아름답고 빛나든 오히려 윤부마를 밋기 어려울지라 삼년이 한번 보시미 필공주의 재미 윤치로 상적호 비필이를 갖거 옥식이 즈뫼 화열흐시니 〈윤하정삼문취록〉 64권.

45) 철소저의 옥모화절과 유한호 덕성이며 설소제의 성즈광염이 초군 특이후여 흐나흔 계공 신월이오 흐나흔 부상 흥일이라 광영이 찬난호고 서뫼 분비후여 각각 고모의 성덕광휘를 계적할 재미속원이니 윤하정 산문 제부인 제소제 아니면 다시 신부의 성덕광용을 디두허리 업스니 〈윤하정삼문취록〉 16권.

교하는 서술이나, 정운기가 조성난의 외모를 어머니(윤명아)와 숙모(정혜주)에 비교⁴⁶⁾하는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하정>에서 세대가 바뀌어 정월염, 윤선화 등을 주요 인물로 하는 서사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 인물은 <명주>에서 나왔던 윤명아와 정혜주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설명된다.

회를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3세대 인물들의 외모와 덕을 윤명아와 정혜주의 순위와 비슷하게 올리고⁴⁷⁾, 서사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3세대 인물들을 대거 정리하면서 장현임, 조성난, 소봉난, 엄월혜, 윤선화, 윤옥화, 정월염, 혜선공주를 ‘기중 탁출흔 바’⁴⁸⁾로 꼽는다. <명주>와 <윤하정> 중반까지 정혜주와 윤명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순위 나열이었다면 <윤하정>의 후반부에서는 정혜주와 윤명아와 같이 각 가문의 독보적인 인물을 내세우지 않고 3세대 여성 인물들을 대거 나열하는 수평적 늘어놓기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윤하정>은 <명주>의 의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를 교체하면서 <명주>와 서사적 긴밀성을 갖기도 하고, 차별성을 갖기도 한다.

또한 <윤하정>은 <명주>가 단순히 외모를 비교하여 인물의 외적 분위기를 장황하게 서술하며 분량을 늘렸던 것과는 달리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

46) 어시 헤오더 저긋톤 용화 기질을 보미 흥운던 즈당과 숙널숙모 썸이라 탄복 불이러니 <윤하정삼문취록> 11권.

47) 조쇼부는 금세의 성녀 철부로 윤현부의 뒤홀 니을 숙네니 <윤하정삼문취록> 56권.

48) 내연의 성흔미 외던과 일체라 덩진남화 스비와 하장 낭부인이며 녕능공 부인과 하승상 부인과 제왕비 의렬과 조티비 양녀 한승상 부인 우시 낭낭흔 피옥을 울녀 쥬석의 조티비와 뉴티부인을 뵈시니 제부인이 이모지년이로디 상낭상 격조와 윤염흔 기뵈 청낭 완혜하여 쇼년 흥분을 웃거늘 즈너부 손증 쇼년 부인니와 옥선공쥬 교즈 현질이 텃디 정미를 오로지 거두어 막상막하여늘 기중 탁출흔 바는 평제왕 총부 승상 동계공 원비 당시와 츠부 초왕비 조성널과 평진왕 총부 쇼시와 윤승상 총부 오왕비 엄시와 쇼승상 부인 선화쇼져와 한혹스 부인 옥화쇼져와 하상국 총부 평동왕 원비 당시 월염과 츠부 혜선공쥬 등의 성덕광화논 식지중이오 덕지원이라 만당 제빈의 흥장 분면이 스스로 제 몸을 도라보아 온 줄 뉘웃더라. <윤하정삼문취록> 101권.

는 외모 비교서술도 나타난다. 〈명주보월빙〉이나 다른 국문장편소설에서 외모의 묘사는 분량을 늘리기는 하지만 서사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완월회맹연〉은 서사의 결말에서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모이는 장면에서 인물을 비교하며 품평하는 서술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때 비교와 품평이 분량의 확대에는 기여하지만 서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⁴⁹⁾ 그러나 〈윤하정〉에서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 비교도 나타난다.

다만 손으로써 읍녀의 일신 만체를 어로만져 보니 응지 갖흔 설뿔 섬석삭삭
 하여 의심업슨 미인이로더 만일 쇼부인이라 혼즉 쇼부인은 싱산의 길홀 드디어
 시니 낭위 놓חת거늘 츠인은 낭위 치 즈라지 못흐 티 규슈의 거동이오 엄쇼저는
 바야흐로 잉티 팔구삭이라 섬외 완실흐며 복중이 놓חת거늘 츠녀는 가는 허리
 초궁버들이 힘이 업슨듯흐니 의심 업슨 규녀의 밋시라⁵⁰⁾

위는 윤성린이 침소에 들어온 여인이 누구인지 추리하는 부분이다. 술에 취한 윤성린의 처소에 여혜정이 음심을 품고 몰래 들어와 누워 있었는데 윤성린이 여인의 몸매를 비교하며 정체를 추리하는 과정이 제법 흥미롭게 서술되고 있다. 이는 인물의 외모 비교가 미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국한 되지 않음을 보인다. 이상, 〈윤하정〉은 〈명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외모 비교서술을 활용하고, 서사적 전개에도 영향을 미치며 장르관습을 적극 수용하되 변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엄씨〉에서 외모 비교서술은 여성 인물보다는 남성 인물에게서, 주요 인물보다는 부수적 인물에서 나타난다. 주요 인물인 엄창이나 엄영의 외모를 비교하는 것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부수적인 인물들의 외모를 비교하는

49)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69~70쪽.

50) 〈윤하정삼문취록〉 68권.

경우를 찾기 쉽다. 예를 들어 엄초혜의 남편인 조희영과 엄난혜의 남편인 화희경의 외모를 장모인 최부인이 비교하는 것⁵¹⁾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 서술은 〈윤하정〉에서처럼 서사 전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친다. 화희경의 외모를 통한 화희경의 인물됨 평가는 용서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부수적 인물에 대한 비교 평가 서술은 최부인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최부인은 딸들에게 적국이 생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데 화희경은 호방한 성격으로 인해 여러 처첩을 두기 때문이다.

그밖에 엄희의 아내인 문씨와 양씨의 외모 비교를 통해 인물의 성격까지 평가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문씨는 본디 한유하기를 조히 너기고 녀공침션 부치의 쇼여흔지라 마양 학스의 의견과 즈기 의상을 다 갑술 쥬고 짓는지라 스지 진탕혀여 능히 스물을 진인 거시 업고 양쇼져는 녀공지스의 브즈런하고 슈션방적의 미진히미 업셔 하우의 춘음을 앗기는 성덕이 잇고 신속히미 남다른 고로 문씨의 지용의 비기리오 비겨 의논히미 진쥬와 와श्यक고 품질의 니도히미 양화와 공즈 갖고 다만 방불이 비겨 의논히면 윤티우 부인 선혜와 학스 부인 옥혜와 잠간 불급하나 화도독 부인과 조학스 부인 등 계쇼져 좌를 비기미 막상막하하여 요지 금원의 도리 흥형이 다토와 웃는 듯흐나⁵²⁾

위 인용은 양소저의 성품은 문씨와 비교하면서 외모는 엄선혜나 엄옥혜와 비교하는 부분이다. 〈엄씨〉 서술자는 엄선혜와 엄옥혜가 미와 덕을 모두 갖춘 인물이며 문씨는 이들 무리에서 색도 덕도 한참 떨어지는 인물로 서술한다. 또한 엄선혜의 외모를 〈윤하정〉의 소봉난과 비교하는 서술⁵³⁾이

51) 조상은 년기 최소하니 니른바 미여관옥이오 화싱은 담쇠 풍능하고 언논이 당당하여 식견의 훗출함과 쇼견의 고명히미 천쥬 영웅이오 당시 인걸이라. 〈엄씨효문청행록〉 3권.

52) 〈엄씨효문청행록〉 5권.

53) 오직 디두지 구가 제부인 중 윤한님 원비 소쇼저의 찬찬 슈이흔 용화덕질이 아니면

나 엄월혜와 윤월화를 최고로 평가하는 서술⁵⁴⁾을 통해 〈엄씨〉가 〈윤하정〉의 미의 기준을 의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윤하정〉이 〈명주〉에서 보인 수직적 외모 순위를 수평적 외모 나열로 전환되어 가던 것에 비해 〈엄씨〉는 다시 수직적 외모 순위를 드러낸다. 즉, 〈엄씨〉에서는 〈윤하정〉의 주요 인물이 미와 덕의 기준이 되며 그 기준으로 다른 여성 인물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엄씨〉에서 주목할 점은 작품의 말미에서 나타나는 대연(大宴) 장면에서 엄씨 가문의 사위와 손자들의 외모 품평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선 〈명주〉나 〈윤하정〉이 여성 인물의 외모 품평에 힘을 쏟은 것과 상반되는 양상이라 주목할 만하다.

녀·화·석·엄·윤 등 제이 다 부조여풍으로 출뉴탁세흐른 누루히 일크를 비 업 거니와 추밀공의 제손 문빅 문명 문경 문성과 문희와 각노의 양즈 홍문 창문이 이의 나아오니 개개히 경즈옥골이오 사기옥쉬라 티시 제손을 보미 두긋기⁵⁵⁾

이는 〈완월회맹연〉에서 자손들에 대한 평가를 하며 가문의 번성을 자랑

방불하니도 엇기 어려울지라 네파의 좌의 나아가미 윤시 계부인과 신부의 옥티월광이 참척상하하여 위췌 금반의 황황하고 보벽이 닛토아 상광을 흘니는 듯 성장칠비셔로 어튼겨 보광이 징휘하니 한갈갓치 숙인성스의 못거지라 만당제빈과 죽친이 존당과 진왕을 향하여 〈엄씨효문청행록〉 4권.

54) 좌중의 더부러 의논코져 홀진디 엄시 선혜쇼져의 성모월티라도 능히 당치 못홀 거시오 기여 제쇼져와 엄성 형태의 부인 한양 냥쇼제 비록 아롭다오나 윤쇼져의게는 다 하풍이라 오직 디두홀 즈는 윤도찰 부인으로 일쌍 가인시오 진짓 적쉬라. 〈엄씨효문청행록〉 9권.

이 가온디 남평빅 윤후성부인 디엄시와 왕윤창 계부인 쇼엄시와 엄가노 부인 윤시의 천교만염이 별분 특이찬난하여 우열참치 업고 기여 티스의 습녀와 추밀의 장녀며 설복야의 녀아 윤실의 화모옥티 찬난슈려하여 오게의 난향이 옥옥하고 보비로운 상세 황황하니 좌직이 다 주식을 잇고 실혼상담하여 입을 주리혀지 못하여 복복칭찬하여 가로터 〈엄씨효문청행록〉 25권.

55) 〈엄씨효문청행록〉 32권.

하고 가족의 화합을 강조하는 장면화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엄씨〉는 가문의 번창과 가족의 화합⁵⁶⁾을 넘어서서 1부 1처에 대한 서술자의 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⁵⁷⁾

이상 정리하자면 인물의 외모를 비교하고 품평하는 것은 국문장편소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명주보월빙〉 연작은 등장 인물 중에서도 윤명아와 정혜주, 윤월화, 엄월혜, 엄선혜, 소봉난을 기준으로 외모를 비교하고 품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명주〉에서는 윤명아와 정혜주의 외모를 지배적 기준으로 두고 수직적 외모 순위를 평가했다면, 〈윤하정〉에서는 윤명아와 정혜주에서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3세대 여성 인물 대개가 뛰어난 외모를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며느리들의 외모를 수평적으로 평가하였다. 〈엄씨〉는 〈윤하정〉에 나오는 윤월화, 엄월혜, 엄선혜, 소봉난을 기준으로 외모 비교서술을 한다. 또한 〈명주〉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외모 비교서술이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윤하정〉이나 〈엄씨〉는 서사 전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나타난다.

3. 〈명주보월빙〉 연작의 다채로운 서사 전개와 스토리월드의 확장

〈명주〉는 2세대인 정천홍과 윤명아, 윤광천과 정혜주, 윤희천과 하영주의 서사이며, 〈윤하정〉과 〈엄씨〉는 2세대의 자손들인 3세대의 서사이다. 〈윤하정〉이 〈명주〉의 윤·하·정 삼문의 자손들의 서사에 수렴되어 있다

56) 정병설은 〈완월회맹연〉의 자손 비교와 평가가 가족의 화합을 드러낸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정병설(1997), 앞의 글, 70쪽.

57)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면⁵⁸) 〈엄씨〉는 〈윤하정〉에 등장한 윤성린과 윤창린 형제의 서사를 활용하여 〈명주보월빙〉 연작의 서사를 확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엄씨〉를 방계형 연작이나 파생작으로 평가하며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⁵⁹)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주보월빙〉과 〈엄씨효문청행록〉의 경우에도 서술자의 의식과 서술자의 서술 태도 또한 공유되는 지점이 있기도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눈에 띄는 비교서술 양상 중심으로 도출하였지만 이는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도 충분히 드러나는 지점일 것이다. 현존하는 〈명주〉, 〈윤하정〉, 〈엄씨〉뿐 아니라 존재가 불분명한 ‘금환재합연’이나 ‘소씨가록’ 등도 계열체라 할 수 있다. 즉, 통합체로서 〈명주보월빙〉 연작이 지니는 의미를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록〉 두 작품만 통해 도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기실 〈명주보월빙〉 연작의 “혼재된 경향”⁶⁰)은 운명론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또한 이에 〈엄씨효문청행록〉을 추가한다고 해서 혼재된 경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경향이 더욱 다양하게 구조된다고 할 수 있다.

58) 물론 〈윤하정삼문취록〉은 〈명주보월빙〉에 비해 서사가 확산된 작품이다. 그러나 〈엄씨효문청행록〉을 기준으로 본다면 〈윤하정삼문취록〉은 〈명주보월빙〉에서 중심 가문이었던 윤·하·정을 지속하면서 각 가문으로 수렴되는 서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엄씨효문청행록〉은 윤·하·정 삼문과 관련되는 다른 가문으로 서사의 중심 공간을 이동하면서 〈명주보월빙〉 연작의 서사를 확산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확산과 수렴은 각 계열체들 간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다.

59) 최근 〈명주보월빙〉 연작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연구는 〈명주보월빙〉 연작의 구조적 반복을 통한 연작성의 확인을 했던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명주보월빙〉 연작이 지니는 소설사적 가치를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최길용이 석사논문과 박사논문, 저술서에서 반복했던 것처럼 〈엄씨효문청행록〉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명주보월빙〉 연작의 계열체로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록〉만 다루고 있어 아쉽다. 본고는 〈명주보월빙〉 연작은 연작의 방향성이나 유형과 상관없이 ‘연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길용, 앞의 글, 1983, 1~173쪽.; 최길용(1989), 앞의 글, 1~228쪽.; 유현주(1989), 앞의 글, 1~110쪽.; 유인선(2021), 앞의 글, 1~231쪽).

60) 유인선(2021), 앞의 글, 200쪽.

본고에서는 이를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마블 세계관’, ‘방탄소년단 세계관’, ‘게임 세계관’ 등과 같이 현대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관은 “비교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문화와 법칙이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⁶¹⁾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문학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작품 속에 구축된 세계를 시간적·공간적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포함하여 하나의 스토리 내에서 구축된 세계는 물리적 조건뿐 아니라 서사물 속 시간에 유지되는 시대적 윤리 규범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²⁾ 특히 서사물 속 세계의 규칙이나 법칙을 뜻하는 ‘에토스(ethos)’⁶³⁾가 세계관의 핵심이라는 점⁶⁴⁾을 통해 ‘세계관’은 배경을 넘어서 작품을 지배하는 원리로도 기능함을 알 수 있다. 헨리 젠킨스는 그의 저서에서 “복수의 등장 인물과 복수의 스토리를 복수의 미디어를 통해 이어 가려면 세계가 필요하다.”⁶⁵⁾는 영화작가의 견해를 인용한 바 있다. <명주보

61) 이준희, 최유민, 「확장형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위한 세계관 디자인 연구: 구름 빵의 사례」, 『디자인학연구』 28, 한국디자인학회, 2015, 166쪽.

62) 세계관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라 할 수 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현되지만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며 기존의 이야기를 재생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준희, 최유민 (2015), 앞의 글, 165~173쪽; 임혜리, 「고전 한문소설 <삼한습유>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91쪽; 최윤영,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의 확장 사례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117쪽).

63) 미토스(mythos), 토포스(topos), 에토스(ethos)는 세계관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이다. 미토스는 서사물의 기본 배경지식이 되는 정보들, 토포스는 서사물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배경, 에토스는 서사물 속 캐릭터들이 따라야 하는 윤리적 규범, 가치관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Klastrup L., & Tosca, S. P., Transmedial World-Rethinking Cyberworld Design, In CW, 2004, 409~416쪽).

64) 최윤영(2020), 앞의 글, 17쪽.

65) 헨리 젠킨스, 김정희원, 김동신 역, 『컨버전스 컬처-올드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충돌』, 비즈앤비즈, 2008, 168~169쪽.

월빙〉 연작 역시 동일한 세계관 속에서 복수의 등장 인물과 복수의 스토리를 생산하면서 확장을 꾀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방계형 연작’, ‘파생작’, ‘연작’을 벗어나 ‘명주보월빙 시리즈(series)’로서 당대 향유자들의 ‘문화 향유’의 증거라 할 수 있다.⁶⁶⁾ 즉, 〈명주보월빙〉 연작의 작가와 독자는 〈명주보월빙〉 연작의 세계관 속에서 주변부 스토리를 증가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추가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 캐릭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⁶⁷⁾ 등의 방법을 통해 스토리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주〉에서는 주요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던 주요한 서술방식이 〈윤하정〉에서는 다양한 인물에게 사용되며, 〈엄씨〉에서는 다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명주〉에서는 남성 인물의 성격 차별화에 주력했다면, 〈윤하정〉에서는 다양한 인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하면서 서사를 더욱 다채롭게 했다. 그런가하면 〈엄씨〉에서는 비교서술에서도 〈윤하정〉을 깊이 의식하고 있다. 〈명주〉에서는 〈윤하정〉의 주요 인물로 등장할 3세대 인물에 대한 비교서술을 미리 해놓음으로서 〈윤하정〉의 서사 전개를 미리 기획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⁶⁸⁾ 예를 들어 “양양한 격조와 늙은 기상이 완연이 창후(윤광천)의 아시 적 모양이라 …중략… 골격 기상이 광천을 닮았는지라.”와 같은 〈명주〉의 서술은 〈윤하정〉에서 윤웅린의 서사를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윤하정〉에서 윤웅린은 아버지 윤광천처럼 호방한 성격으로 여러 아내를 모으러 다니며 윤광천과 같듯하기도 한다. 물론 〈명주〉에서 미리 서술해 둔 3세대들의 성격이 〈윤하정〉에서 온전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를 통해 〈윤하정〉이 단순히 전편에 대한 이어쓰

66) 정혜경은 “국문 장편소설은 하나의 모듈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새로운 작품 산출에 기여하며 하나의 스토리 월드를 구축해 나간 장르”로 규정한 바 있다. 정혜경, 앞의 글, 2020, 99쪽.

67) 최윤영(2020), 앞의 글, 26쪽.

68) 현계 즈엌은 삼세 희이나 칠팔세 쇼으의 신당이오 선평옥골이 만고 무비케닐 윤기는 싱디 괴년이 못흐디 농봉즈달이 병부여풍이라 〈명주보월빙〉 36권.

기의 열망으로 쓰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는〈명주〉와 〈윤하정〉이 초기 기획단계부터 방대한 세계관 속에 설정되어 있었음을 보이는 단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명주〉는 여성 인물에 대한 이상적 모델을 윤명아와 정혜주로 제시한다. 〈윤하정〉은 〈명주〉의 이런 의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다가 3세대 여성 인물들의 이상적 모델 군을 제시하면서 서사의 확장을 꾀할 수 있었다. 이때 3세대 여성 인물들에 대한 품평이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변화됨으로서 삼대록처럼 ‘종적’ 확장이 아닌 다문록⁶⁹⁾처럼 ‘횡적’ 확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횡적 나열은 ‘캐릭터를 다르게 보기’의 유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엄씨〉 역시 거대한 기획 속에 놓여 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윤하정〉이 윤성린 시각의 서사에서 부수적으로 엄월혜의 서사가 결합된 것이라면 〈엄씨〉는 엄월혜 시각의 서사에서 윤성린의 서사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⁷⁰⁾

한편 〈엄씨〉는 〈윤하정〉에서 나온 인물들을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면서 〈명주〉에서부터 이어지는 ‘윤현’⁷¹⁾의 자손에 대한 의식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엄씨〉에서 이상적 여성 인물의 모델로 삼은 인물은 윤월화와 윤선화, 엄월혜와 엄선혜인데, 이들은 윤광천과 윤희천의 딸이자 며느리이다. 즉 〈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현’을 공통소로 그 자손들의 캐릭터를 변형 추

69) 양문록이나 삼문록처럼 같은 세대의 여러 가문의 이야기가 결합된 것을 다문록이라 할 수 있다.

70) 기존 연구에서는 〈엄씨〉를 엄창과 최씨의 계후갈등이 드러나는 소설로 파악하고 있지만, 〈엄씨〉는 엄창과 최씨의 계후갈등담과 엄월혜와 윤성린의 혼사장에담이 결구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71) 윤현은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미토스’에 해당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윤현은 윤명아, 윤광천, 윤희천의 아버지로 명나라의 위기를 본인의 목숨과 맞바꾼 충신으로 표현된다.

가하면서 스토리월드를 확장하고 있다.

〈명주〉와 〈윤하정〉에서 나타나는 여성 인물 중심의 외모 품평이 〈엄씨〉에서는 남성 인물 및 자손의 외모 품평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이를 설명한다. 2장에서 살펴본 바, 〈엄씨〉에서는 〈완월회맹연〉처럼 남성 인물에 대한 품평이 나타난다. 남성 인물에 대한 품평은 가문의 번성과 화합을 그린다는 의미가 있다. 만약 〈엄씨〉만 놓고 판단한다면 〈완월회맹연〉과 크게 다르지 않게 분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연작 선상에 두고 본다면, 가문의 번성으로만 귀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나타난다. 〈엄씨〉의 엄부는 지독하리만큼 일부일처를 추구한다. 〈윤하정〉에서 나타난 ‘엄씨’를 모친으로 둔 조성남, 설소저 등은 남편의 호방함 때문에 옹서갈등의 주요 캐릭터로 나온다. 〈엄씨〉를 통해 엄부의 분위기를 보면 ‘엄씨’들의 그러한 성격이 이해가 되는데 엄부의 엄백진의 아내는 최씨 한 명뿐이며, 엄백현도 범사만 동오왕인 엄백경도 장씨만 아내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엄백경은 ‘동오왕’이라는 지위 때문에 희첩이 있으나 희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 또한 엄백진 형제의 누이인 엄부인도 설복야의 유일한 아내로 표현된다. 이에 ‘최씨’ 역시 일부다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엄초혜와 혼인한 여단, 엄옥혜와 혼인한 조희영에 대해서는 한 아내만 데리고 살 성인군자로 바라보는 한편 호방한 화희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대한다.

일부다처의 경우 아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간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수반된다. 또한 아내들의 고하(高下)를 정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와 덕이라는 기준으로 가문을 안정시키고 이끌 인물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엄씨〉에서처럼 일부일처일 경우 한 인물이 당연히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 인물의 품평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남성 인물의 품평은 최씨와 유사한 서술자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명주보월빙〉 연작은 일부다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윤현’을 통해 구축된 세계관 속에서 통합체로 인식된다.

이상 〈명주보월빙〉 연작은 방대한 세계관 속에 기획된 작품으로서 〈명주〉에서 집중해 놓은 서사를 〈윤하정〉에서 다양하게 확산시키며 또 다른 연작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둔 작품이며, 그 가능성이 〈엄씨〉로 증명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명주보월빙〉 연작은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으로 이어지는 방대한 서사를 담고 있는 국문장편소설이다. 〈명주보월빙〉 연작이 20세기 초까지도 세책점에 나왔다는 점은 국문장편소설의 쇠퇴 기라고 일컬어지는 시기에도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하겠다. 그러나 〈명주보월빙〉 연작이라고 할 때 ‘연작’으로 〈엄씨〉를 포함해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와 함께 방대하고 복잡한 세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연구는 연작 관계의 확인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에 힘입어 〈명주보월빙〉 연작이 지니는 통합체적 의미를 글쓰기 방식의 하나인 비교서술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성품 및 성격 비교서술 양상과 외모 묘사 및 순위 정하기 비교서술 양상으로 나누어 〈명주〉, 〈윤하정〉, 〈엄씨〉를 살펴보았다. 〈명주〉는 주로 윤광천과 윤희천, 정천홍과 정세홍 같은 남성 주요 인물 간의 성품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윤하정〉은 정운기와 원홍 같은 남성 주요 인물과 남성의 비교, 그 밖의 주변 인물들의 비교, 여성 인물들의 성격 비교를 하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엄씨〉는 엄창과 엄영에 대한 남성 주요 인물에 대한 비교를 찾기 어려우며, 엄부의 인물보다는 사위같은 엄부 밖에서 온 인물의 성격을 비교하는 양상을 보인다.

외모 비교서술의 양상에서도 성격 비교서술 양상에서처럼 〈윤하정〉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명주〉나 〈엄씨〉가 미와 덕을 기준으로 하는 수직적 인물 품평을 하는 반면, 〈윤하정〉은 미와 덕을 가진 인물들을 대거 풀어놓는 수평적 인물 나열하기를 한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명주〉와 〈윤하정〉은 함께 기획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명주〉와 〈윤하정〉만큼의 치밀한 기획은 아니어도, 〈윤하정〉 이후의 후속작이 유기적 세계관 안에서 쓰일 수 있도록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윤하정〉은 〈명주〉나 〈엄씨〉에 비해 다채로운 비교서술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명주〉에서 집중해 놓은 서사를 〈윤하정〉에서 확산하며, 〈엄씨〉는 〈윤하정〉에 의지하되 새로운 서사에 집중함을 알 수 있다. 이때 〈명주〉, 〈윤하정〉, 〈엄씨〉는 윤희을 미토스로 하는 세계관 속에서 다양한 서사를 아낌없이 펼쳐내며 스토리월드를 확장하고 있다.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해서 서사가 균질적이거나 서술자 의식이 일관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명주〉와 〈윤하정〉에 나타난 일부다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엄씨〉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뀐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주보월빙〉 연작이 쓰이고 널리 읽혔다는 것은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엄청난 주제의식이나, 소설적 완성도보다는 유기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 독자들이 흥미를 찾았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교서술의 양상만으로 〈명주보월빙〉 연작의 글쓰기방식이 현대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방식과 유사함을 증명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명주보월빙〉 연작의 방대함과, 트랜스미디어 개념의 복잡성 등을 한데 모으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실제 ‘서술’을 중심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인물비교서술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명 다른 글쓰기 양상을 통해서도 〈명주보월빙〉 연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주보월빙〉 연작이 아닌 다른 국문장편소설 연작에서도 글쓰기 방식의 의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후속 연구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교감본 명주보월빙』, (최길용 교감, 학교방, 2014).
- 『명주보월빙』,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 『엄씨효문청행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 『윤하정삼문취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 김경희, 「고전소설을 활용한 온라인게임의 서사화 방안-〈명주보월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58쪽.
-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 문체론적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66~96쪽.
- 김서윤, 「〈엄씨효문청행록〉의 모자 관계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275~309쪽.
- 김은일,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201~228쪽.
- 박경숙,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인물형상화의 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70쪽.
- 박영희, 「〈엄씨효문청행록〉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의미」, 『어문연구』 29, 어문학회, 2001, 134~149쪽.
- 부인식, 「〈명주보월빙〉의 천상계에 대한 수사적 접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46쪽.
- 성숙, 「〈명주보월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132쪽.
-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3, 1~354쪽.
- 오세정, 「한국 건국신화의 정치적 약호와 상징작용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8,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5, 151~174쪽.
- 오현희, 「설명적 텍스트를 활용한 논리적인 글쓰기 방안」, 『국어교과교육연구』 19, 국어교과교육학회, 2011, 85~106쪽.
- 유인선, 「〈명주보월빙〉 연작 연구-운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231쪽.
- 유현주, 「〈엄씨효문청행록〉 연구」, 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 1989, 1~110쪽.
- 이상택, 「〈명주보월빙〉 연구-그 구조와 존재론적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1~131쪽.
- _____, 「〈명주보월빙〉의 작품세계」, 『정신문화연구』 11, 한국학중앙연구원,

- 1981, 201~212쪽.
- _____, 「〈윤하정삼문취록〉 연구-〈명주보월빙〉과의 작품적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1~512쪽.
- 이준희, 최유민, 「확장형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위한 세계관 디자인 연구: 구름빵의 사례」, 『디자인학연구』 28, 한국디자인학회, 2015, 165~173쪽.
- 이현주, 「조선 후기 가문 소설의 계후갈등 변이양상 연구 -〈엄씨효문청행록〉, 〈형헌공숙렬기〉,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학』 62, 한민족어문학회, 2012, 451~474쪽.
- 이후남,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요괴 연구-여우 신묘랑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2019, 171~201쪽.
- 임혜리, 「고전 한문소설 〈삼한습유〉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91쪽.
-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 반동인물 연구」, 『고소설 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93~126쪽.
- _____,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309~342쪽.
- _____, 「〈윤하정삼문취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양상과 그 서사적 기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197~247쪽.
- _____, 「〈윤하정삼문취록〉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1~29쪽.
- 전상욱, 「항목동 세책의 대출장부에 대한 고찰」,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535~563쪽.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42쪽.
-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 대표 혼사담에 내재한 영상 문학적 요소의 시론적 고찰」, 『동방학』 1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345~374쪽.
- _____,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사대부가의 상례 양상과 의미」, 『동방학』 3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5, 82~115쪽.
- _____,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사대부가의 유교적 가정생활 고찰 -가문 구성원간의 예(禮)를 중심으로」, 『동방학』 2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283~324쪽.
- _____,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인물간 결연의 특성」, 『온지논총』 17, 온지학회, 2007, 321~358쪽.
- _____, 「〈윤하정삼문취록〉의 혼사담 연구」, 한국외대박사학위논문, 2008, 1~

- 311쪽.
- _____, 「남성 가장의 역할과 기능-〈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8, 온지학회, 2008, 249~270쪽.
- _____, 「여성 가장의 역할과 기능-〈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동방학』 1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145~182쪽.
- 정창권,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43~68쪽.
- 조광국, 「〈엄씨효문청행록〉에 구현된 별열가부장제」, 『어문연구』 32, 어문학회, 2004, 227~253쪽.
- _____, 「별열소설의 효 구현 양상에 대한 연구-별열소설 전개의 한 측면: 〈유효공선행록〉, 〈엄씨효문청행록〉,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어문학회, 2005, 135~161쪽.
-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91~129쪽.
- _____,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17~264쪽.
- 조혜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양녀(養女) 화소의 양상과 의미 - 『양현문집절기』와 『엄씨효문청행록』을 중심으로 -」, 『동서인문학』 60,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77~100쪽.
- 채윤미, 「한글장편소설의 요도 요승 형상 연구-〈임씨삼대록〉, 〈쌍성봉효록〉, 〈명행정의록〉, 〈명주보월빙〉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0, 이화어문학회, 2020, 141~173쪽.
-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전북대석사학위논문, 1983, 1~173쪽.
- _____,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89, 1~228쪽.
- 최윤영,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의 확장 사례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117쪽.
- 페르디낭 드 소쉬르, 김현권 역, 『일반언어학 강의』,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1~547쪽.
- 헨리 젠킨스, 김경희원, 김동신 역, 『컨버전스 컬처-올드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충돌』, 비즈앤비즈, 2008, 1~424쪽.
- S. 채트먼,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1~324쪽.
- Klastrup L., & Tosca, S. P., Transmedial World-Rethinking Cyberworld Design, In CW, 2004, 409~416쪽.

ABSTRACT

A study on the writing style of *Myeongjuboweolbing* series

Kim, Eun-il

This study reviewed the *Myeongjuboweolbing* seri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aspects of personality appearance and ranking. It was found that the narrative proposed in *Myeongjuboweolbing* extended to *YunHaJeongSammunchirok*, however. *Eomsihyomuncheongrok* revealed a new narrative based on that of *YunHaJeongSammunchirok*. The *Myeongjuboweolbing* series is based on the worldview of the *Myeongjuboweolbing* series and has diversity. Through its various narratives, the *Myeongjuboweolbing* series created a vast fictional inspired by the worldview of Yunhyeon. However, the portrayal of a single worldview does not imply homogeneity of narratives or consistency of narrative consciousness. Nevertheless, the popularity of the *Myeongjuboweolbing* series indicates that readers found the various stories centered on different worldviews more interesting than the subject or completeness of the work.

Key Words

YunHaJeongSammunchirok, *Eomsihyomuncheongrok*,
Myeongjuboweolbing series, Korean classical full-length novels

논문투고일 : 2021.10.25.
심사완료일 : 2021.11.07.
게재확정일 : 2021.11.09.